

한국사회정책 편집인의 글

한국사회정책 제30권 제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총 여섯 편의 연구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개발재정의 역사적 기원과 작동방식에 관한 연구: 산업화 시대 한국 국가는 ‘감세국가’인가?”(김명수)은 1960~70년대 한국의 산업화를 떠받쳤던 개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형성된 역사적 경로를 탐구했습니다. 1960년대 중후반 원조가 감소하자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공공저축과 민간저축, 개발차관, 통화 증발, 증세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는 한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개발재정의 기능을 재평가하고 있는데, 개입주의적 국가 역할을 강조하는 ‘발전국가론’과 이와 대립되는 ‘감세국가론’의 타당성을 역사적 관점에서 조목조목 따지고 있습니다. 역진적 조세체제가 제도적 틀을 갖추고 온전히 기능한 것은 1980년대 전후 10년에 불과하며, 그간 경시되어 왔던 개발재정의 중요성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복지국가 발전과 조세재정정책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생태적 노동의 의미와 불안정성에 대한 탐색: 청년 생태활동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한인정·이지은)는 생태적인 삶을 지향하는 청년들이 수행하는 생태적 노동의 의미와 방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실업자나 다름없는 14명의 청년들이 생태적 노동에 부여하는 의미를 그들의 목소리로 전달하고 있으며, 유급 노동과 생태 노동 사이의 갈등과 선택의 결과로서 불가피하게 직면하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졸업 이후 취업이라는 당연한 삶의 과정에서 벗어나 유급노동이 아닌 대안적 노동을 지향하는 청년의 삶에 학술적 의미를 부여한 참신한 연구입니다.

“OECD 국가의 유연안정성 및 유형별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조합과 이행기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비교연구: 한시적 근로를 중심으로”(김민정)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청년의 한시적 근로자 비율에 미친 영향을 OECD국가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 비교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세분화하여 고용보호,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 직접 일자리창출 투자와 청년 한시적 근로자 비중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고용보호 수준이 높고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이 높은 조건은 높은 청년 한시적 근로자 비중의 필

요조건으로, 낮은 직접 일자리 창출 투자는 낮은 청년 한시적 근로자 비율의 필요조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기를 기준으로 2009년과 2018년을 비교한 결과, 청년 한시적 근로자의 증가에 있어서는 오히려 노동시장의 높은 유연성이 원인이 되었으며, 초기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이 높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양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정책조합이 청년들의 일자리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999~2019년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유급-무급노동시간 및 분담율 변화와 영향요인”(이혜정·송다영)은 1999~2019년에 조사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남녀의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시간의 변화와 영향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노동시간의 변화를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주중보다 주말에 남성의 무급노동분담율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된 가용한 시간, 젠더이데올로기, 소득, 적응지체 정도라는 경합하는 요인이 남성과 여성의 주중과 주말 가사와 돌봄 시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준 연구입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가사와 돌봄의 성불평등의 원인을 입체적으로 파악한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의 과제: 시장 창출, 시장 수정, 시장 보상의 관점에서”(정창률)는 한국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민간의 복지 정책의 기능을 시장 창출, 시장 수정, 시장 보상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면서, 노후소득보장으로 제대로 역할하고 있지 못하는 퇴직연금제도에 적절한 시장 수정과 보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무화된 퇴직연금제도의 성숙을 위해 제도를 어떻게 정교화해야할지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들에서 자가점유율과 복지지출의 관계”(서성훈)는 기초자치단체 가구의 주택보유율이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단위에 따라 편차가 큰 주택 가격을 통제하고 자가점유율이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율’과 ‘경상일반재원 중 자체사회복지예산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시 단위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이 있었던 데 반해 군·구 단위에서는 그러한 영향이 없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가점유율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기초자치단체 도시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도 두 편의 서평을 담았습니다.

손병돈 교수(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빈곤을 숫자나 현상이 아닌 부단한 과정으로 바라보는 인류학적 시각을 제시한 조문영(2022), 『빈곤과정』을 논평해 주셨습니다. 이 책이 앞으로의 빈곤 연구가 실증주의적 접근과 결과로서 빈곤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을 가지

고 보다 근본적인 성찰을 추구해야 한다는 울림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저자들이 지난 20년 동안 목도한 사회정책의 진전과 정체, 퇴보의 내용을 담은 김용익·이창곤·김태일(2022), 『복지의 문법』을 논평해 주셨습니다. 이 책은 '나라는 성공했는데, 개인은 왜 불행한가'라는 우리 사회의 '난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사회정책의 시각에서 경제정책을 바라보며' 그 둘의 불협화음과 부정합을 쉽지만 깊고 폭넓게 다루고 있다고 짚어 주셨습니다.

이번 한국사회정책 제30권 제1호에 실린 논문과 서평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23. 3. 31

편집위원장 **윤자영, 백학영**